

또 다른 영토 출판사가 개척해야 할

홈페이지는 매력적이다. 24시간 정보(광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게시판 등의 기능을 통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음반, 영화 등 다른 콘텐츠 분야와 마찬가지로 '책'이 홈페이지를 반겼던 이유이다.

하지만 막상 출판사에서 문을 연 홈페이지는 독자를 불러들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전문인력 부재와 책이라는 고유의 콘텐츠를 가지고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한다. 책은 온라인에서 성공한 영화나 음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판사는 네티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했고,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구매를 원하는 독자들은 출판사의 홈페이지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온라인 서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현재 대부분의 출판사 홈페이지가 단순히 자사소개와 도서목록 소개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홈페이지는 글렀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출판사의 입장에서 여전히 기회와 땅이다. 몇몇 출판사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 출판사가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기존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앞으로 우리 출판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기도 하다.

궁리의 표정훈 씨, 들녘의 서보선 씨, 휴머니스트의 박재호 씨 등 출판사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주목할 만한 홈페이지를 소개해 주었다.



1. 이산 www.yeesan.co.kr

깔끔한 디자인에 복잡한 콘텐츠를 쓰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홈페이지다. 책 소개가 알차고 특히 저자의 약력들이 다른 수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다.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역사·문화 전문 출판사답게 '동양사 링크집'이 유용하다.



2. 책세상 www.writers.bkworld.co.kr

단순 명료한 메인페이지를 통해 책세상의 장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작가, 고전, 문학, 전집 등으로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도서목록의 서지정보를 읽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안으로 들어가도 서지정보를 알 수 있어 정보를 읽는 독자들의 지루함을 없애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궁리 www.kungree.com

궁리닷컴은 출판관련 검색 디렉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도서 및 출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정리, 생산하고 있다. 출판평론가 표정훈 씨가 책임편집자로 웹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좋은 책을 선정, 발굴, 소개하고 책, 출판에 대하여 담론을 제공한다.



4. 휴머니스트 www.hmcv.com

휴머니스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억하고 싶은 책' 코너다. 휴머니스트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은 편집장 추천글, 디자인 스토리, 발행인의 한마디 등 만든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특히 책임기획자인 편집장과 책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디자이너의 이야기는 저자나 독자, 서평 전문가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준다.



5. 문학과지성사 www.moonji.com

문학과지성사의 장점은 작가와 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와 독자의 만남을 유도해 내는 문지칼럼, 주목할 만한 작가 등 항상 같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자주 업데이트시켜 주는 관리자의 노력이 보인다. 또 문화마당은 전문 웹진 형태로 이루어져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6. 길벗 www.gilbut.co.kr

길벗은 자격증 수험서를 출간하게 됨에 따라 독자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컴퓨터 일반서와 수험서 분야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 일반서에서는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길벗의 장점을 이용한 문제해결마당이 눈에 띈다. 독자가 궁금한 점을 인터넷상에 올리면 비교적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7. 재미미주 www.jaimimage.co.kr

홈페이지의 구성이 어린이책을 만드는 출판사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곳으로 네비게이션이 재미있다. 여러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그림읽기 책보기'는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웹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독자(어린 자녀에게 책을 골라주는 부모)로 하여금 책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며 다시 한 번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매력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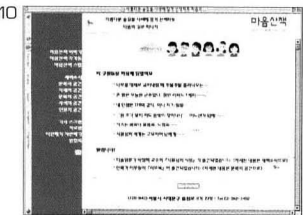
8. 21세기북스 www.wisebook.com

한국 기업의 경영혁신과 비즈니스맨의 자기계발, 투자를 위한 도서를 발간해 온 21세기북스는 자사의 콘텐츠를 인터넷에 맞게 변형해 소개하고 있다. e-비즈니스 전략과 기술, 증권투자과 채테크, 창업과 경영 등의 비즈니스 지식정보와 전문가 칼럼, 동호회 등이 있는 비즈니스 포럼이 있다. 방문자들은 각 분야별로 자신의 기획안을 올릴 수도 있다.



9. 또하나의문화 www.tomoon.org

또하나의문화는 출판사 사이트라기보다 말 그대로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장'이다. 당대의 중요한 이슈를 통해서 새로운 상징과 의미를 생산해 내는 동인지와 출판은 사실 '또문'의 한 부분에 속한다. 오프라인으로 '또문대학'과 여성, 어린이, 환경관련 분야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온라인에서는 커뮤니티와 성감수성 교육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0. 마음산책 www.maumsan.com

문학서적을 주로 출판하고 있다. 감함보다는 부드러움을, 주장하기보다는 스밀을 기조로 정해졌다는 출판사의 이름처럼 소박하지만 여성적인 섬세함이 느껴지는 홈페이지이다. 자사 책 소개를 문학의 공간, 문화의 공간, 지혜의 공간, 사색의 공간, 인물의 공간 등으로 구분해 놓았고 게시판인 이론편기 저론편기과 방명록에는 비교적 성실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1. 아이세움 www.i-seum.com

아이세움은 대한교과서 주식회사가 시작한 출판·교육·정보 서비스 사업본부 이름이다. 연령별 찾기, 주제별 찾기, 시리즈 찾기 등 카테고리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노력이 보인다. 따로 운영되고 있는 만화세상은 이문열의 《삼국지》를 원작으로 이희재가 그린 만화삼국지를 통해 어린이들이 《삼국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12. 시공사 www.sigongsa.com

단행본과 어린이책, 만화, 문예지 문학인을 발행한다. 기존의 아날로그 콘텐츠를 가공해 게임(게임타임)에서 만화(코믹플러스), 도시정보(쑤시티), 온라인 서점(리브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다.